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가대 정기대

주 제:	“목마름”	“사순 제 3주일”	2008년 2월 24일
복음 묵상:	마태 17,1-9	창세 12,1-4 7	2 티모 1,8 1-10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반면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증은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진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의 메마름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에서 1~2%정도의 물이 빠져나갈 때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도 우리 몸은 이를 알아채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민감하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은 우리를 더욱 갈증 나게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삶으로 우리가 마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다. 와서 마셔라” (군중 한상필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4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미사곡, 거룩한 주님, 문들어 머리들라, 기억하라, 한시간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주는 저산밑에 백합, 금요일, 새 계명은, 주 친히 저녁 상에서, 성인 호칭기도(성가 265)를 연습하였습니다. 모든 곡을 다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미사곡(각 파트별), 기억하라, 문들어 머리들라.**를 본당웹에 올려 놓았으니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부활절 성가 연습 스케줄

- 2/24: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들라 * 기억하라 * 한 시간도
- 3/2: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3/9: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 사순 특강 및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 중에 특강이 있겠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사순 제 3 주(2월 29일) 특강 : 황정연 신부님 (예수회)

사순 제 4 주(3월 7일) 특강 : 문종원 신부님 (서울 대교구)

- 특강 (무지개 원리) 3월 4일(화) : 차동엽 신부님

■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은 이 사순 시기에 풍성한 전례와 특강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hoever drinks the water I shall give will never thirst.”(John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복음 [마태 17,1-9]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1분 명상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은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께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하여 주소서,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향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